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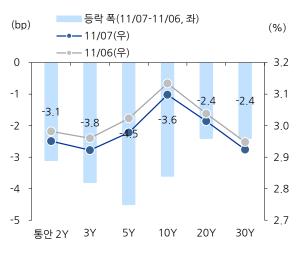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						
		11/7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22%	-3,8	-1,4	-23.2	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98%	-3.6	-0.2	-8.5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7.6	17.4	16.4	2.9	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7	12.0	2.0	45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19	41.0	-4.0	69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02%	-6.3	3.0	-4.9	
	미국채 10년물	4.328%	-10.6	4.2	44.8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2,6	16.8	11.4	-37.1	
	독일국채 10년물	2.444%	4.0	5.9	44.0	
	호주국채 10년물	4.638%	1.1	13.2	68.4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미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 어느정도 해소된만 큼, 그간 약세 되돌리는 모습. 장 중 원/달러 환율 반락 하고, 저가매수세 꾸준히 유입되며 금리 하락을 지지함
- 장 마감까지 강세폭은 다소 확대. BOE 통화정책회의, FOMC 앞둔 가운데 추가 인하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FOMC, 고용 완화 등을 근거로 25bp 인하. 파월,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에 있기에 가파른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
- 트럼프 트레이드 소폭 완화. 파월, 트럼프 당선은 단기 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 제한됨을 강조한 까닭
-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, 전주 대비 반등한 점도 미국채 강세 일부 뒷받침함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W ¥ \$

FX & Commodity (단위: %, \$)						
		11/7일	1D	1W	YTD	
환율	원/달러	1,396.60	0.0%	1.2%	8.4%	
	달러지수	104.34	-0.7%	0.4%	3.0%	
	달러/유로	1.080	0.6%	-0.7%	-2.2%	
	위안/달러(역외)	7.15	-0.8%	0.4%	0.3%	
	엔/달러	152.85	-1.1%	0.5%	8.5%	
	달러/파운드	1,298	0.7%	0.6%	2.0%	
	헤알/달러	5,69	0.3%	-1.6%	17.3%	
상품	WTI 근월물(\$)	72,36	0.9%	4.5%	1.0%	
	금 현물(\$)	2,704.25	1.6%	-1.4%	31.1%	
	구리 3개월물(\$)	9,664.00	3.4%	1.7%	12.9%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0.40원 상승한 1,396.6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85.70원 급락 마감.
- 트럼프 당선을 반영하며 간밤 1,400원을 상회한 달러-원은 1,401.10원에 개장. 장 초반 상승폭 확대하며 1,404원을 돌파해 연고점 경신.
- 그러나 이후 당국의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반락. 한국 외 일본과 중국에서도 구두 개입 등 당국 경계감이 커 지면서 추가 상승세가 제한됨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FOMC 미팅과 파운드화 급등 속 급락.
- 연준은 FOMC에서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하. 파월 의장의 인플레에 대한 자신감은 다소 약해졌지만 12월 인하에 선을 긋지는 않았음. 그간 트럼프 트레이 드로 급등했던 금리와 달러는 모두 큰 폭 되돌림.
- 반면 BOE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,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라 인플레 전망을 상향하면 서 향후 점진적인 인하 기조를 예상, 파운드화는 급등.
- 금일 미국 소비자자심리지수 발표 예정.